

난장이의 변명

「학력사항」

- 여수상법고등학교 졸업
- 송실대학교 법대 졸업
- 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 중앙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오시영

「경력사항」

- 제30회(1988년)사법시험 합격
-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
- 대한변호사협회 사법시험평가위원
- 한국시인협회 감사
- 현대시학회 회장
-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
- 송실대학교 법대 학장 · 법학연구소 소장
- 현) 송실대학교 법대 교수(재산법/민사절차법)

I. 첫머리에

여러분께서는 조세희 씨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책을 읽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저자가 그 책속에서 절규했던 난장이의 고뇌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가 '뽀비우스의 띠'에서 하고자 했던 얘기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함께 굴뚝 청소를 하고 난 후 동료청소부의 얼굴이 까맣다는 사실만 알 뿐 자신의 얼굴 위에 묻어 있는 껌정을 알지 못하는 굴뚝청소부의 해학적인 슬픔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느날 무심코 집어 들었던 한권의 책은 나에게 강한 아픔을 안겨 주었고 난장이로 살아야 하면서도 진정한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녀의 처절한 삶의 방식 속에서 난 거울 속의 내자신의 자화상을 오랫동안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풍요한 수확의 계절 뒤에서 여름내 땀흘렸던 많은 난장이들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감히 이 글을 쓰려 합니다.

II. 어린 시절

내 고향은 전남 여수 - 한려수도의 기점으로서 남해의 푸른 파도가 넘실거리고 아름다운 국립해상공원인 동백섬 오동도가 자리잡고,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충절어린 기개가 서려 있는 전라좌수영의 본산이었던 전남관이 자리잡고 있는 살기 좋은 곳이다.

역센 바다 기질과 순박한 인심의 도시에서 경제적여건이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크게 어려움도 느끼지 않았던 어린 시절은 열심히 노력하시며 착하게 사셨던 부모님의 사랑과 형제들의 우애속에서 평범하게 생활했었다.

어렸을 때부터 바다는 마냥 좋았고 폭풍우 휘몰아칠 때의 걱정과 위엄, 그리고 폭풍우 지난 후의 고요함은 어머니의 포근한 가슴인 양 나를 감싸 안았고 어렸을 적의 나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듯 싶다. 숨막힐 듯한 도시 공간속에서 언제나 나에게 가너린 향수를 느끼게 하는 고향바다는 내 성격 형성에 큰 몫을 차지하였고 지금도 산보다는 바다를 더 좋아하게 만든 원인인 듯하다.

어린 시절, 서울로 유학 보낼만큼의 경제적 여건이 되지 못했던 까닭에 부모님의 권유와 내 자신의 판단에 따라 난 일일계 고등학교를 가기로 결정했고 조금은 아쉬웠지만 여수상업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여 졸업 후 은행원이 되어 자립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했었다. 학비는 장학금을 받아 해결했고 용돈은 국민학생들 과외교사 노릇도 해서 조달하기도 했다. 당시의 형편에서는 대학진학은 나와 무관한 남의 얘기였고 따라서 졸업반이 되었을 땐 당연히 취직하는 것이 최선의 목표가 되었고, 그리하여 취직시험을 치른 결과 현대건설 주식회사와 중소기업은행에 모두 합격을 하여 친구들이 취직 걱정을 하고 있을 때 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행복한(?) 고민을 하기도 했었다. 현대건설 쪽은 백대일이 넘는 경쟁을 통과한 것이어서 애착이 갔으나 당시 입사동기는 모두 울산조선소에 발령이 난다하여 나중에 기회가 온다면 야간대학이라도 다녀 볼 욕심으로 중소기업은행을 선택하였다. 또한 졸업하던 때 중학교에 이어 전체수석으로 졸업을 하게되어 도교육감상을 두 번째 수상하기도 했다.

III. 군복무시절

오늘의 나를 되돌아보면 군복무 3년간의 시절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마냥 세상을 순탄하게만 여겨왔었는데 고된 극기훈련과 엄격한 통제와 규율 속에서 절제된 삶과 희생의 정신을 배웠고, 특히 엄격한 상관들의 가르침 속에서 행정병으로서의 훈련을 받게 되어 주어진 임무를 효율적으로 짜임새있게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능력과 사고의 폭과 깊이를 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전역식장에서 사단장으로부터 모범사병이라는 표창장을 수여받고 인사처 보좌관이었던 김소령님으로부터 “우리사단 모불나간다.”라는 한마디 격려의 말씀에 내 젊은 시절-3년간의 군복무기간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가슴에 새기면서 고향으로 돌아 왔다.

IV. 은행원 시절

제대 후 은행에 복직하여 은행원으로서의 본격적인 직장생활이 시작되었다. 첫 발령지는 군산지점이었는데 군대에서 배웠던 차드 솜씨는 은행장의 지점순시시 브리핑차드 작성에 특독히 한 몫을 담당하였고, 그 덕분에 지점장의 사랑도 많이 받았던 듯 싶다. 하지만 3년간 단절된 직장생활을 연결하고 은행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은행실무편람과 제규정 숙지에 심혈을 기울였고 친절한 고객서비스를 위한 창구매너를 익히기 위해 노력했으며, 동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했다.

직장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후 한번도 뇌리에서 사라지지 아니했던 학문에의 욕구는 현실을 박차고 뛰쳐 나갈 수 없었던 경제적 여건 때문에 차선책으로 방송통신대학을 진학토록 하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 정진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과의 교제를 가능케하여 줌으로써 2년후 행정학과를 졸업할 수 있었다.

여수지점으로 발령이 나 고향에서 근무하게 되어 연로하신 부모님과 형제와의 애정을 돈독히 할 수 있었고, 여수에서 근무했던 2년동안에 결혼도 했고 부모님의 임종도 지켜볼 수 있는 효도를 할 수가 있었다.

또한 여상금융인동문회장직을 맡게 되어 고교선후배들과 함께 불우이웃돕기 일일차집을 열어 기금을 마련하여 고아원과 양로원을 위문하였으니 이 또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다.

수원지점으로 근무지를 옮겨 지금도 친하게 교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선한 인간관계를 맺게 되었고, 행원로서는 마지막 시절을 보내게 되었다. 수원에 근무하면서 본점연수과에서 실시한 외자실무연수에서 1등을 하였던 적도 있었고, Role Playing-역할연기대회에서 수원지점 대표로 참가하여 전국 130여점포에서 1등을 차지하여 포상금을 받아 전직원 이유회를 갖던 일 등 아름다운 추억거리가 참 많다.

개인적으로는 은행창립 20주년을 맞아 은행장으로부터 모범직원이라는 공로표창도 받고 '은행의 꽃'이라 불리우는 대리시험에 합격하여 천안지점으로 승격발령을 받아 책임자가 되었다.

10여년간의 은행 생활에서 경제적 여건은 점차 안정되어 왔으나 상고졸의 입행역사는 하사관 대접 밖에 받지 못한다는 동료들과의 자조섞인 대화 속에서 한 위치 격상한 지점장대리로서의 책임자승격은 오히려 나에게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내적갈등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은행 창구를 통해 극명하게 표출되는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무의식적인 차별은 단돈 백만원의 용자를 얻기 위해서 수없이 은행문을 넘나들다가 결국에는 거절당하고 돌아서는 많은 소시민들과, 편법과 결탁으로 손쉽게 거액의 용자금을 얻어내는 재주좋은 빗쟁이 사장님들과-물론 대부분의 기업주들은 정당한 절차를 통한 용자와 기업발전을 통해 사회와 국제발전에 기여하지만-의 사이에서 많은 현실적 괴리를 느끼는 도가 커감에 따라 점차 생각하는 시간을 오래 갖게 되었으며, 나름대로 가난하지만 절약하여 푼돈이라도 저축하고 자 노력하는 이웃에서 은행창구에서만이라도 친절한 호의를 베풀기 위해 애써보았지만, 힘

이 부족하여 벽에 부딪힐 때가 많았고, 하루에도 결재하기 위해 수천개의 도장을 찍으면서 과연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회의에 빠지기도 하였다. 물론 어렵사리 용지를 받아 건설한 기업으로 성장하여가는 많은 거래처를 볼 때 기쁨도 컸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손가락에 끼는 거래처가 부도를 내고 수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남긴 채 잠적해 버리는 빚쟁이 암채족들을 볼 때 인생의 아이러니를 많이 느끼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현실과 눈에 선하게 비치는 미래의 자화상과의 대조속에서 결단의 시간이 나에게 찾아왔다. 고교졸업 후 10년이 넘게 나를 수없이 충동질해 오던 학문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이상으로서는 참으로 행복했지만, 경제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고시를 향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순환열차를 바보처럼 올라타서 아내를 고생시키고 다섯살박이 형민이에게 장난감 하나 시원스럽게 사 주지 못하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V. 고시를 준비하면서

1. 대학 입학

10여년간의 직장생활을 하다가 나이가 서른이 훨씬 넘어 대학진학을 위한 학력고사준비를 하여, 만족스러울만큼의 점수는 아니었지만, '진리와 봉사'를 가르침으로 삼고 있는 숭실대학교 법대에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여 나이 어린 동생들과 함께 어쩔뻔 나보다 나이적은 강사선생님들께도 배우는 만학도의 대학생들이 시작되었다. 학교 수위 아저씨들이 처음엔 교수나 학교 직원인 줄 알았던지 교문을 드나들 때마다 거수경례를 열심히 하는 바람에 얼마나 거북했던지 모른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절로 웃음이 나오던 때였다.

2. 겸손을 배우면서 제1차준비

은행을 사직하고 1학년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고시공부를 시작하여 학교에서 마련해 준 고시실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집에 들러 조반을 들고, 두 개의 도시락으로 점심과 저녁을 해결하는 명실상부한 고시생활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10년이 넘게 방치되어져 있던 두뇌를 요구했고, 특히 어학을 해결하지 못해 고시 합격하는 기간을 예상보다는 조금 길게 연장시켰다.

기분같이서는 2학년쯤 1차를, 3학년쯤에는 2차까지 될 듯 싶어-늦게 시작했다는 강박관념이 나를 재촉하기도 했지만-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노력했지만 27회 및 28회에서 1차를 실패하고 말았으니 그 요인은 영어에서 바닥을 기는 점수 때문이었다. 27회 1차응시에서 합격점에서 근소한 차로 실패한 후 28회 때는 될 듯 싶어 2차 과목에 치중하였으나 역시 근소한 차로 실패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실패의 원인이 영어였음이 밝혀지자 주위에서는 제2외국어로 바꾸어 보는 것이 좋지않겠느냐는 권유도 있었지만 그 권유를 따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영어를 극복하지 못하고 제2외국어로 바꾸어 설령 합격이 된다 하더라도 내 자존심

을 몹시도 상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겸손해지기로 했다.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한 다음 난 고교생들의 애독서인 'Man to Man'으로 영어를 기초부터 다시 시작했다.

다음해 1차 보러 가기까지 매일 3시간씩 영어와 친해져 보려고 몹시도 노력을 기울였다. Man to Man으로부터 시작해서 종합영어, 이재옥과 아카데미토플, Vocabulary 22,000과 33,000에 이르기까지 무던히도 짝사랑을 했다. 그 짝사랑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그래서 29회에서는 조금은 넉넉하게(평균 86.5) 합격할 수 있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좋았을텐데 고집스럽게 혼자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갔으니, 지금 생각해 보면 실로 우스운 것이 선택과목으로 고른 과목이 국제사법이었는데 책 부피가 얇아보여 무조건 국제사법부터 시작했으니 넌센스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주위의 경험있는 분들의 조언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소중한 고시에의 산경험임을 새삼 강조해 두는 바이다.

국사와 문화사는 공부할수록 소중한 가르침을 주었던 듯 싶다. 단순한 과거사실의 암기 속에서 시험용공부로서의 기능은 어느새 나에게 인간의 어리석음과 만용을 가르쳐 주었고 현재의 내 위치와 미래에 대한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무게있는 학문으로 다가와 새로운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고마운 과목이 되었다. 경제학 역시 단순한 기술적 학문이 아니고 치민과 치심을 위한 기본적 지식을 제공해 주었다.

'법은 정의'라고 신뢰하면서 법서를 접하기 시작하여 인간 삶의 규범인 법을 학문적으로 접근해 갔으나 교정에서 올려 퍼지는 젊은 함성과 현실을 슬퍼하며 눈물짓게 만드는 최루가스의 잔혹함 앞에서 끝없는 회의와 갈등을 겪었다.

최루탄을 쏘아대는 정당성의 근거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공부해서 성공한(?) 법률가들이러니 하는 생각은 법학에 대한 가치 상실을 안겨 주었지만 숨어서 그늘에서일망정 불의와 압제에 항거하며 정의의 햇불을 높이치켜든 선배들의 모습에 위로받으며 공부를 계속해 나갔다.

수풀 속에 숨겨진 개개의 나무를 살피는 태도 최선을 다했지만, 가능하면 숲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태도와 시험과목 전체의 체계를 세워 나가는 방법을 통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갔다. 최대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 근처로 이사를 하여 하루 평균 열서너시간씩은 공부량을 확보해 나갔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체력이 유지될 수 있었는지 신기하기만 하다. 일요일은 철저히 쉬고 교회성가대에서 찬양으로 봉사하였으며 평상시에도 가능한한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다.

시간은 흘러 졸업을 하게 되었다. 서른일곱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전체 수석을 하게되어 최우수상을 이사장으로부터 받게 되었는데 이것도 뉴스거리가 되는지 MBC TV 차인태 출발새아침에 약 5분정도 내 졸업식 장면이 조금은 과장되게(?) 미화되어 방영되었다.

3. 대학원 진학과 제2차합격

승실대학을 졸업 후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진학하여 지난해 2차에서 나를 골탕먹였던 민법을 전공하면서 2차준비를 병행해 나갔다.

2차시험 2개월을 남겨두고 처음으로 신입동에 위치한 청룡고시원에서 최종 마무리 정리를 하였다. 원장내외분께서 잘해 주셔서 무척 고마웠으며, 짧은 고시원 생활에서 만났던 사람들, 청운의 꿈을 안고 젊음을 불사르고 있는 많은 분들의 모습은 나에게서는 하나의 커다란 충격이었다.

2차시험 기간중은 시험장소였던 국민대학 근처로 거소를 옮겨 시간의 절약과 몸의 피로를 최소화시켰으며 수면은 충분히 함으로써 맑은 정신으로 시험에 임하도록 노력하였다. 마지막 시험과목인 형사소송법의 문제지가 펼쳐질 때 무척 긴장하였으나 눈을 들어 문제를 읽어 나갈 때 안도의 한숨과 함께 금년에는 합격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에 편안한 마음이 들었다. 정성들여 답안지를 작성하고 시험장을 나올 때 시험기간동안 내 퍼붓던 여름장마비는 그치고 하늘은 맑기도 푸르렀으며 국민대학 교정에서 바라보는 북악의 푸르름은 청춘이었다.

2차합격자 발표 하루전 다시한번 눈을 감고 채점해 보니 합격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으나 발표당일은 조금 긴장되었다. 사실 공부한다고 4년간 놀고 먹었더니 직장생활 중 저축해 두었던 돈과 퇴직금이 이제 거의 바닥이 드러난 상태였다. 금년에 실패하면 억울하지만 고시보다는 돈을 벌어야만 아내와 귀여운 형민이랑 현실을 타개해 나갈 수 있으므로 이상보다는 냉정한 현실을 택할 기로에서 있었기 때문이다.

발표시간이 임박해질 때쯤 난 영화관에 앉아 있었고 제목도 기억나지 않는 싸구려 동시상영 영화를 두편이나 보고 시간을 보내고-어둠이 짙게 깔린 밤거리를 걸어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다. “아빠 합격이야!”하고 뛰쳐나오는 형민이와 아내의 환한 웃음뎤 얼굴을 바라보았을 때 내 두 눈에 맺히는 이슬방울을 숨기려 씩 한번 웃고선 형민이와 아내를 사랑으로 힘껏 안아준 뒤 난 하나님의 성전에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내 지은 죄조차 사함받기 부족한 죄인이 나를 정죄할 수 있는 훌륭한 법조인이 될 수 있을지 심히 두렵사오나 오직 하나님의 송의와 진리로 판단하게 하시고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시며 어떠한 고난과 두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는 다윗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다.

4. 지난 4년간을 되돌아보며

어쩔 무모하다고 느껴지는 고서에의 결단은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의 만류와 염려스러움으로 시작을 했었다.

지금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참으로 많은 억지를 부리는 억척스러운, 한편으로는 보람있었던 기간이었다는 생각에 기쁘다. 원래 성격이 단순한 편이라 한번 목표가 주어지면 다른 것은 개의치 아니하는 성격 탓으로 오직 한 길을 열심히 걸어왔던 듯 싶다. 육신이 허물어져

내릴듯한 피곤함도 많았고 어쩔때 글씨가 보이지 아니하는 시력의 피곤함도 있었고, 내가 지금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수없는 자문 속에서 무던히도 잘 인내해 온 듯도 싶다.

하지만 몹시 외로웠고—이 본질적 고독은 어느 누구도 채워 줄 수 없을 것이다—차라리 마라톤선수처럼 반환점이라도 보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워하면서 끝없는 터널 속에서 어디에선가 비칠 빛을 찾아 출구를 향해 방향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쓰며 살아 온 지난 4년이었던 듯 싶다.

Ⅵ. 하고 싶은 얘기들

1. 시험주무관청에 대한 건의

첫째 제1차 선택과목에 있어서 난이도는 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2외국어를 택하신 분들에게는 죄송스러우나 대부분이 제1외국어에 대한 도피로서 제2외국어를 택하시는 경향이 많은데 왜 득점분포도가 제1외국어보다 월등히 높아야 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선택과목도 그 점수분포도가 해마다, 과목마다 편차가 심하여 진정으로 승복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둘째, 제1차과목에 있어서 비법과목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주위의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볼 때 비법과목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점입니다. 왜 법학능력을 평가받아야 할 시험이 비법과목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어야 하는지 상당한 모순성을 느낍니다. 따라서 비법과목인 국사와 문화사를 택일하게 하거나 다른 법과목을 추가하거나 민법 등의 법과목에 가중치를 두는 등 적극적인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셋째 시험의 출제 및 집행과정에서보다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란 사실입니다. 시험가에서 흘러 다니는 소문들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사후에 일치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되는 바 공정과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해 정당한 실력만이 인정받을 수 있는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넷째, 2차시험에 있어 2시간내에 세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많다고 봅니다. 냉정한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지 아니한채 많은 수험생들을 시간에 쫓기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과목마다 출제경향이 해마다 바뀌어 일관성이 없어 수험생들에게는 많은 애로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문항수를 두 문제로 줄이되 한 문제는 순수한 법리논적, 학문적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로 또 한문제는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출제하여 법이론을 현실적으로 해석 적용하는(판례에 대한 능력평가포함)방법으로 모든 과목이 출제 경향을 통일하여 공고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가능하시면 시험결과 발표일을 앞당겨 주시고 특히 2차결과 발표 후 3차시험일의 간격을 가급적 줄여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고시생 여러분께

오늘도 고독한 자기와의 싸움에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겠지요. 부디 건강에 주의하시고 마음을 평안히 갖기 바랍니다. 철저한 제로섬게임일 수 밖에 없는 고시에의 길은 어느 정도의 두뇌와 건강, 그리고 시간을 허락해주는 경제적 도움없이서는 어려우리라는 생각입니다. 실력은 있으나 운(?)이 없어 안되는 경우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으나 실력없이 요행으로 합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최대한의 시간 확보와 노력만이-소수의 특출난 천재들은 예외이겠지만-합격에의 가장 빠른 지름길일 것입니다.

깊은 고뇌와 외로움이 엄습 할 때 합격한 후 기뻐할 가족의 모습을 떠올리시면, 마음의 고통과 육체적 고통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요법을 통해 슬럼프를 극복하시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법관이 되려는 마음이 정의를 수호 하려는 굳은 신념일 때 자기확신이야말로 공부하는 기간동안 가장 좋은 반려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종교생활을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고시공부는 저에게 있어서는 외로움 그 자체였고 이 외로움은 어느 누구도 채워주지 못했지만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었고 내일에의 소망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는 시간 동안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보살핌 속에서만이 가능한 축복된 삶을 잊지 마시고 행복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가족분들께

고시생을 두신 가족분들께서는 외로운 길을 힘겨워하며 걸어가고 있는 고시생들을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반대와 질책보다는 따스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 한 마디가 합격의 그 날을 훨씬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VII.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높아만 보이는 골문을 향해 수없이 많은 공을 쏘아 보았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서도 인젠가는 적중하리라는 신뢰를 가지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높이가 날아오르도록 최선을 다했던 아쉬움없는 몇해였다.

나에게 바람이 있다면 평판사로서 정년을 마칠 수 있는 삶을 살아 가겠다는 각오와 나에게 주어졌던 작은 달란트를 써어지는 밑알로 살아가겠다는 각오이다.

오늘도 산사나 고시원, 또는 도서관에서 자기 정진에 여념이 없으실 많은 학형들의 건강과 학문에의 성취를 간구하며, 믿을 것은 절대실력 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교재 선택에는 신중을 기하시되 한번 선택한 교재는 끝까지 신뢰하시고 몇회 반복하시면 충분히 정복되리라 생각하면서 진인사대천명의 겸손으로 합격의 영광을 쟁취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구약성경 욥기 8장 7절의 말씀-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을 마지막으로 이 글을 끝맺을까 한다.